장인의 한땀 한땀

(행12:1~19)

1. 그 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4. 잡으매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 내고자 하더라
5.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6.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장인의 한 땀 한 땀>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장인의 한 땀, 한 땀'
여러분, 혹시 장인 마케팅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속형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수입품 중에서도 저가의 중국산 수입품, 아니면 동남아시아나 유럽 같은데서 수입이 되어도 저희가 사먹는 아이스크림 같은 거 스페인제인데 굉장히 싸요. 한 6천원 주면 1+1 해 가지고 두 개를 주기도 하는…
그런데 이 장인 마케팅이라는 건 그런 제품들과 차별화를 꾀하는 마케팅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요.
그 유명한 가방을 만드는 브랜드 중에 구찌 있지 않습니까? 구찌.
이 구찌 매장이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있는데, 유명한 매장으로 이태리 장인들을 불러옵니다.

이태리 구찌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뭐 수십 년 경력의 장인들을 초정해 가지고, 이 구매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직접 가방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그 가방 안에 장인정신이 들어가 있고, 장인의 숙련된 기술과 장인의 정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 시켜줌으로써, 소비자들이 값은 비싸지만 저걸 하나 사서 소장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소장 가치를 아주 뻣속깊이 느끼게끔 해주는 거지요.

그 유명한 238년 역사를 갖고 있는 덴마크의 도자기 그릇 있잖아요? 로열 코펜하겐.
이 로열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이 도자기 회사에서는, 한국의 소공동에 매장이 있는데, 롯데 갤러리가 있는 소공동에서 전시회를 가졌거든요.
로열 코펜하겐 본사에 250명의 장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탁월한 솜씨를 갖고 있는 Top 9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이름을 제가 써왔어요.
마이켄 루비탕. 39세 된 여성인데, 지난 3월에 소공동 롯데 백화점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하면서, 이 분이 직접 그 도자기나, 밥그릇, 접시 이런 그 주방그릇에 꽃을 그려 넣는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에 비해서, 금년 3월에 이 장인을 모셔다가 이런 시연회를 한 결과, 매출이 67%가 올랐다는 거예요, 아~ 효과가 있지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뭐 경제적인 능력만 된다면 그런 장인들이 직접 와 가지고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 구매 충동이 강렬히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런 장인정신과 장인의 숙련된 솜씨와 장인의 정성이 들어간 그 장인의 손, 그것을 상징화해서 말하는 단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 땀 한 땀'이에요.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인 현빈 씨가 아주 요사 찬란한 트레이닝 복을 입고 나와 갖고, 그걸 보고 웃는 여자 주인공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댁들이 생각하는 그런 트레이닝이 아니야,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서 만든 트레이닝이다'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 뒤로 한 땀 한 땀이라는 말이 이렇게 장인의 손길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 한번뿐인데, 우리의 인생이 장인의 한 땀 한 땀을 통해서 엮어져 가는 인생이 될 수는 없는 것인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계발서가 수 천, 수 만 종류가 서점에 놓여 있는데 다 바보들의 합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합니다.

인생은 내가 나를 계발해서 멋지게 꾸려가는 게 아닙니다, 장인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장인의 손에 맡겨서, 그 장인의 숙련된 솜씨와 장인의 정성과 장인의 정신이 혼연일체가 돼서 투입 되어져, 한 땀 한 땀이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인생의 장인이 살아가도록 내드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로원의 인생인 거예요. 제로원의 인생.

내가 제로가 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을 창조하신 유일한 참된 단 하나 뿐이신 장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한 땀 한 땀 수놓아 가시면서 인생의 역사가 채워져 가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겠다고, 자기계발서를 읽고, 나를 발전시키겠다고 스펙을 계획하고…

바보들이 하는 짓이에요, 바보들이.

스펙을 쌓더라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자격증과 기술을 따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도록 하세요.

자,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에 의해서 수놓아 지도록 하는, 베드로의 이 삶에 대한 태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 번 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헤롯은 헤롯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립바를 말합니다.

헤롯 아그립바가 다스리고 있을 때, 야고보를 죽였어요.

야고보가 누구냐 하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12사도 중에 예수님께서 언제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특별히 구분해서 데리고 다녔던 3인이 있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왜 죽였냐 하면, 헤롯 아그립바의 처지가, 로마 황제로부터 이 팔레스타인지역, 사마리아와 유대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 받았는데, 그 권세를 부여 받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과 마음이 맞아야 자기 통치가 편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이 편안해야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분봉왕의 처지에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라든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제일 마음에 염려하는 것이, 이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기독교를 박해해야 된다고 하는 정치적인 주관적 소신이나 주관적 신앙의 노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냥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다가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몇 사람 지도자를 죽이려고 계획하는 가운데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반응이 아주 좋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고무되어 가지고, 이제 기독교의 수장겪인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둔 거예요.

옥에 가두고, 보초를 4인으로 이루어진 4개조, 그러니까 16명이지요, 16명이 4명씩 짝을 지어 가지고 24시간 감시를 하는데, 밤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군인이 자기 손 하나에, 베드로의 양손에 쇠사슬을 딱 꽤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밖에서는 두 명의 보초가 한 명은 감옥 바로 앞에서, 또 한 명은 그 감옥으로 들어오는 감옥의 대문 앞에서 지키고 있고, 그 대문 바깥에는 감옥 전체 울타리의 문인 철문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 가지고 베드로를 깨우고, 이 잠자고 있던 지키고 있던 이 군인들은 전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출옥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저는 가슴이 설레요, 진짜.
젊은 청년들이 멋진 아가씨를 보면서 가슴이 설레는 것 같은 그런 설렘이 있어요.
이 파수꾼들이 네 명이나 지금 쇠사슬로 채우고 지키고 하고 있는데도 출옥했다는 이 굉장한 일이 진짜 굉장한 겁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정말로 굉장한 일이 뭐에요?
이 베드로가 출옥한 기적의 상황은, 우리 평생에, 아니 백 명을 모아 놓고 평생을 다 계산해

봐도, 평생을 따져 봐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굉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지극히 평범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정말로 굉장한 일은, 베드로의 잠입니다.
사람이 잠을 잔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잠자고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매일 반복해서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잠은 굉장한 겁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힘을 빌어서 출옥한 일이 굉장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일상적으로 사람이 자는 잠을 이 상황에서 잤다는 게 특이하다는 거예요.
6절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 여러분 들어보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지금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이고 그 전례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목 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있어서, 그 전날 밤에 잠을 잤다고 해요.
잠을 잤는데 천사가 와 가지고 깨울 때, 발로 옆구리를 찹니다.
저는요, 아주 작은 알람 시계소리를 듣고 매일아침 4시 반에 일어나요.
그리고 누가 제가 자고 있는 방에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 해도, 조용히 들어와도 저는 깹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천사가 와 가지고 감옥 안이 환~하게 비추고 있는데, 잠이 안 깨고 있는 거예요. 발로 옆구리를 찼어요, 깨우려고.
이건 뭐 헤롯에게 목 베임을 당해 죽기 전에, 자는 사람의 옆구리를 천사가 발로 차버렸으니 채여서 죽게 될 판이에요.
그렇게 깨웠어요, 그렇게, 베드로를 그렇게 깨웠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 수가 있을까?
본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잠이 많은 사람인가?
아무리 잠이 많아도 그렇지, 내일 아침이면 끌려 나갈 판이고, 쇠사슬이 묶여서 양 군인 틈에 끼여 있는데, 인생의 마지막 밤입니다.
자, 비교를 해 보면 알아요, 베드로의 잠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를 비교해 봐요.

5절과 12절에,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베드로가 잠자다 깨가지고 출옥해 갖고 기도하고 있는 교인들이 모여 있는 곳,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왔는데, 그때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야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 난리가 나 철야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로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잠들은 겁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십자가 주님에게 연합해 버린 겁니다, 이미 주님이 죽으실 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자기 육체의 삶과 죽음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 주님 따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로 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로 되었을 때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출옥 시키십니다.
내일이면 순교해야 되도록 계획되어 있고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교인들도 베드로가 왔다는 말을 안 믿고, 계집아이가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다는 말을 듣고 그 계집아이 보고 미쳤다고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베드로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는 의미에요.
죽을 걸 기정사실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출옥을 시키신 거예요.
야고보와 스테반 때는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교인들이? 기도 했어요, 근데 죽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출옥한 것은 교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백 퍼센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하시다가 출옥을 시키신 거라는 겁니다,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출옥을 선택하셨다.
야고보 때는 순교를 선택하신 겁니다, 스테반 때도 순교를 선택하신 겁니다.

이 본문이 뜻하는 바가 그러므로 뭡니까?
인간의 제로 됨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로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시다가,

한 인생의 장인으로서 마이스터로서 가장 최선의 길을 계획하고 선택하셔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 땀 한 땀 내 인생이 장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수놓아져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제로 되면, 완전히 제로 될수록 하나님의 선택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행하시는 마지막 선택이 죽음이에요.
죽은 다음에는 인생이 없으니까.
그렇게 마지막 선택인 죽음 때까지, 하나님은 매순간 내가 제로가 되기만 하면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땀 한 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거에요.
베드로도 결국은 나중에, 네로 황제의 박해 아래서 로마에서 잡혀서 순교해 죽습니다.
이것도 필연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헤롯 아그립바가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 '꼼짝없이 죽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살려냅니다.
그러므로 순교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교가 이루어지도록 선택하시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매 순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선택인 나의 죽음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지혜로 내 인생을 수놓으실 하나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한 땀 한 땀 이루어지도록,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 그걸 내가 살아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대단한 일을 이루겠다고 주력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강릉에 백두대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백두대간이 동해 앞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빠져지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의 순간에 내 입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선택이라면, 그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대통령이 되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겁니다.
내가 뭘 이루려고 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한 땀 한 땀 수놓아 가시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제로가 되기만 하면, 그냥 내 인생에 이루어질 일은 식은 죽 먹기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런 출옥을 계획해 본 적도, 바래 본 적도, 꿈꿔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런 출옥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출옥은 불가능한 출옥인데, 식은 죽 먹기로 일어났잖아요.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조금의 노력도, 조금의 의욕도 가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진행이 되고 성취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은, 내 의욕과 내 계획과 내 소원과 내 열망과 내 정열과 내 노력이 조금도 가미되지 않은 채 다 일어날 것이에요.

그럼 나는 뭐 하는 거냐?
잠을 구하면 됩니다.
내 마음에 평강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풍파가 있고 이 세상에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에 마음이 말려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처럼 잠을 잘 수 있기 위하여 몸부림치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잠을 자고, 평강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몸부림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은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그 능력과 그 정신과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수놓아 가시는 겁니다.
나는 잠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매순간에, 회사에서건 학교에서건 시장에서건 가정에서건, 내 마음에 평강을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평강이 유지됩니까?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휘말리지 않도록 내 마음이 죽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붙잡고 씨름하면서, 내 마음에 평강을 구하고 잠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품에 안겨서 평강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내 이 지상의 삶은,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당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수놓아 가실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옥의 기적 같은 기적도 일어날 수도 있고, 너~무 평범한 하루로 지나갈 수도 있고…
그 평범한 하루가 평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냥 별 볼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평범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한 삶이 그거에요, 특수한 삶인 거예요.
평범해 보이는 삶을 특수하게 선택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신경 쓰지 마세요.
일어날 일이 있으면 일어날 것이고, 사람들이 기절할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사람들이 무시할 만큼 평범한 삶으로 진행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한 땀 한 땀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요.
대한한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장인의 한 땀 한 땀.
진정한 장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 주님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이 세상일에 대해 죽어서, 진정한 잠과 진정한 평강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상황에 대해 제로 되게 하셔서, 베드로의 잠이 나의 잠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러므로 진정한 유일한 장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 인생이 한 땀 한 땀 수놓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